

2001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노고단 정상으로부터 시작된 가을 소식과 함께 2001년 추계 학술발표대회가 문화가 꽃 피는 도시인 순천의 상아탑으로 우뚝 선 순천대학교에서 10월 12·13일 이틀에 걸쳐 1000여명이라는 많은 회원들의 참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분자인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구두발표 134편, 포스터 530편으로 모두 664편을 발표함으로써 최대의 기록을 남겼으며, 이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학문으로서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방 도시라는 피할 수 없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정창남 교수의 빈틈없는 치밀한 계획과 박영훈 교수의 폭넓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여 나재운 교수의 젊음을 담보로 한 일사천리의 진행으로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와이어리스로 학회 일정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던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이 돋보였던 학회였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한 노벨상 후보자인 미국유타대학교의 김성완 박사는 이번 추계 학회를 더욱 빛나게 해 주었다.

12일 오전 포스터 발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인문사회과학관의 대강당에서 한남대학교 김환규 박사의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하였고, 경북대학교 이동호 박사의 강연이 있었으며, 뒤이은 총회에서는 순천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학회 임원들의 학회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2001년도 상암고분자상 수상 후보자로 서울대 조종수 교수와 KAIST 심흥구 교수가 거론되었으나 두 후보자의 학술업적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하여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는 한국고분자학회 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한양대학교의 김성훈 박사와 연세대학교의 이명수 박사가 선정되었으며, 우수논문상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이해방 박사와 충남대학교의 황택성 박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2시30분부터 시작된 특별 강연 및 구두 발표는 8개의 발표회의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4회장에서 산학협동 특별 session은 과학이 단순히 연구실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정체된 학문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각 발표회의장마다 향학열에 불타는 회원들로 가득 메운 광경을 볼 때 앞으로 한국고분자학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가름할 수 있었다.

웅장한 지리산 자락의 정기를 이어받아 첨단 고분자산업의 메카로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여천공단을 등에 업고 끝없이 뻗어가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순천에서 개최되었던 추계학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한다. 오늘의 결실을 밑거름으로 2002년에는 더욱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직이사 나재운>

